

‘길다/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 연구*

임평**

【목 차】

1. 서론
2. 존재론적 은유 이론
3. ‘길다/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
4. 결론

【초록】

본고는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한·중 ‘길다/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다. ‘길다/長’은 [시간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하여 공간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면에서 대응 양상을 이루었다. 또한, ‘길다/長’은 [분량을 개체], [안목을 개체]로 보는 은유의 개념화 양상에서는 공통점이 나타나는 동시에 세밀한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감정 영역에서 ‘길다/長’은 [고통을 개체], [슬픔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의미가 확장된다는 면에서 대응 양상을 보이지만 ‘長’은 [그리움을 개체], [기쁨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다른 감정 영역에까지 투사할 수 있는 면에서 ‘길다’와 비대응 양상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길다’는 [생각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은유 의미가 확장되는 반면에 ‘長’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은유를 보이지 않았고 ‘長’은 [입을 그릇]으로 보는 영상 도식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지만 ‘길다’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은유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키워드】 길다, 長, 존재론적 은유, 영상 도식 은유, 개념화, 대조 연구

* 본 논문은 중국 CSC(China Scholarship Council)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linping0625@163.com)

1. 서론

본고는 인지의미론적 관점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와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공간의 길이 의미를 지칭하는 형용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 중국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한·중 공간 길이 형용사 ‘길다/長’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에는 최미정(2003), 장경희·권우진(2005), 김억조(2008) 등이 있다.

최미정(2003)에서는 아동(兒童)의 언어 습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3세, 4세, 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령(年齡)에 따라 공간적 길이를 판단하는 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절대 길이 판단 능력도 향상되었다. 그리고 유아는 공간의 길이 의미를 지칭하는 형용사를 잘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 비교 판단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 등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경희·권우진(2005)에서는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학년별로 한국어 차원(次元)어의 의미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길다’의 공간 길이 의미는 주로 시간 영역, 텍스트 영역에서 확장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각 의미의 사용 빈도는 주로 ‘공간 의미-시간 의미-텍스트 의미’의 빈도 순서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논문에서 ‘길다’와 ‘소설’, ‘편지’, ‘영화’, ‘지식’, ‘사고’ 등과의 결합을 텍스트 영역에서의 확장으로만 보고 있는데 확장 영역을 구체적으로 하위분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억조(2008)에서는 한국어 8종 사전에서 수집한 공간 길이 형용사의 뜻풀이를 바탕으로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길다/짧다’는 공간, 시간, 분량, 생각, 경험 등 영역에서의 의미는 대응 양상이 되는 반면에 자본, 식성 등 영역에서의 사용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중국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에는 楊艷蘭(2009), 皮奕(2010), 王銀平(2015) 등이 있다.

楊艷蘭(2009)에서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중국어 ‘長/短’의 비대칭 양상을 대조 분석

하였다. 그러나 논문에서 ‘長/短’의 차이점을 단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두 대립어 쌍의 전체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지 않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皮奕(2010)에서는 형태론, 통사론적 관점에서 중국어 ‘長/短’의 비대칭 양상을 대조 분석하였고 비대칭 양상이 나타난 원인도 언어 내적 원인과 언어 외적인 원인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논문은 형태론과 통사론적 관점에서 ‘長/短’의 대칭 양상을 분석한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의미론적 관점에서 ‘長/短’의 대칭 양상을 살펴보지 않은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

王銀平(2015)에서는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영·한 공간 차원 형용사 ‘long/長’의 원형 의미를 다른 추상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한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long/長’의 원형 의미는 모두 시간 영역, 소리 영역, 평가 영역에 투사할 수 있으며 서로 간에 대응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논문은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long/長’ 원형 의미의 확장 영역을 살펴본 면에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논문에서 예문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점과 형용사 ‘long/長’의 비대칭 양상과 비대칭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잘 해명하지 않은 면에 아쉬움이 있다.

한·중 공간 길이 형용사 ‘길다/長’에 관한 연구에는 張琦(2006), 서양(2013), 마교교(2017) 등이 있다.

張琦(2006)에서는 중·한 공간 척도 형용사의 기본 의미와 은유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 은유적 의미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길다/長’의 기본 의미와 은유 의미의 상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형 의미가 어떤 영역에 투사하여 어떤 인지 기제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서양(2013)에서는 인지의미론적 관점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에 기록된 ‘길다/長’의 뜻풀이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대립어 쌍들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그러나 논문에서 ‘길다’의 의미로 첫째는 ‘이어지는 시간이 오래되다’, 둘째는 ‘말 따위의 분량이 많다’, 셋째는 ‘글 따위의 분량이 많다’, 넷째는 ‘소리, 한숨 등 행위가 오래 계속되다’, 다섯째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를 제시하고 이 의미들을 시간 영역과 분량 영역에서의 개념화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 밖에 ‘길다’를 감정, 경험, 지식 등 다른 추상 영역에 투사하여 개념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마교교(2017)에서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한·중 척도 형용사 ‘길다/長’의 기본 의미와 전이 의미를 대조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길다/長’의 전이 의미를 살펴볼 때 단지 몇 개의 사전에 나타난 의미 항목만을 대조 분석한 것과 ‘길다/長’의 기본 의미와 전이의 의미 간에 완전히 대응 양상을 이룬다고 지적한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 중국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 한·

중 공간 길이 형용사 ‘길다/長’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간 길이 형용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아동 언어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진행해 왔다. 그리고 특히,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공간 길이 형용사를 연구한 기존 논문에서는 주로 의미의 대응 양상이나 원형 의미의 확장 영역에 관한 대응 양상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공간 길이 형용사가 어떤 인지 기제를 사용해서 다른 추상 영역에까지 확장하여 개념화하는지에 관한 것, 즉 공간 길이 형용사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는 많지 않는 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와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의 존재론적 개념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형용사 ‘길다’와 ‘長’에 관한 용례 자료는 주로 말뭉치를 통해서 수집하고자 하고 그밖에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과 『漢語大詞典』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어 말뭉치는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¹⁾와 ‘민족문화연구원-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²⁾ 두 말뭉치를 사용하고 중국어 말뭉치는 CCL(Centre for Chinese Linguistics)³⁾와 BCC(BLCU Chinese Corpus)⁴⁾ 두 말뭉치를 활용하여 용례를 수집하고자 한다.

본고는 먼저, 한·중 말뭉치 검색기에서 ‘길다’, ‘길게’, ‘긴-’, ‘長-’, ‘-長’, ‘長長的-’ 등 표현을 입력하여 도출된 용례 중에 존재론적 은유 표현을 수집하고자 한다⁵⁾. 다음으로 존재론적 은유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존재론적 은유 이론은 주로 Lakoff & Johnson(1980)을 참조하고 존재론적 은유 중의 한 유형인 그릇 도식 은유는 주로 Sandra Peña(2003)를 참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존재론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길다/長’의 원형 의미가 다른 추상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한 것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2. 존재론적 은유 이론

전통적인 견해에서 은유는 수사적 장치, 일탈적 현상이라고 여겨 왔는데 인지언어학은 이러한 견해에서 벗어나 개념적 은유 이론을 제시하며 은유를 신체적, 물리적

1)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2) 민족문화연구원-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http://riksdb.korea.ac.kr/>

3) 중국 CCL 말뭉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4) 중국 BCC 말뭉치: <http://bcc.blcu.edu.cn/>

5) 용례를 수집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같은 의미를 가진 용례 중에 내용이 가장 간결하고 은유 표현이 가장 명확한 용례를 뽑았다. 둘째, 예문 그대로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하에, 문장의 내용 일부를 바꾸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

경험에 의한 사고의 영역이라 주장하였다(이선희, 2021:130). 인지언어학에서 은유를 본질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레디(M.Reddy, 1979)의 ‘도관 은유(conduit metaphor)’이다. 레디는 도관 은유가 대략 [언어 표현을 그릇], [아이디어를 물건],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본다.⁶⁾ 이는 아래와 같은 용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a. 비디오가 중요한 정보 전달 매체이다. 『조선일보 생활』
- b. 조연 씨가 입에 그런 말을 담다니,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하백의 딸들』
- c. 그 수필에는 작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의 예문들은 모두 도관 은유를 통해 개념을 구조화했다. 예문 ‘a’에서는 ‘정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이 물건을 ‘비디오’라는 그릇에서 꺼낸 후에 어떤 도관을 통해서 청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예문 ‘b’에서는 ‘입’이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되어 ‘말’이 모두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물건으로 구조화된다. 예문 ‘c’에서는 ‘작가의 감정’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 대상이 ‘수필’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으며 어떤 도관을 통해서 독자(讀者)에게 전달한다. 이런 도관 은유 표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레디는 인간이 도관 은유를 사용해서 구조화된 표현은 약 전체 언어 표현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레디의 도관 은유에 관해 Lakoff&Johnson(1980)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먼저, 도관 은유를 사용해서 구현된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유 인지 기제를 도입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도관 은유는 언어에 대한 관습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맥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대화 참여자들이 문장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어떤 은유 표현은 문맥과 큰 연관을 가져 관습적인 생각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맥락이 필요한 언어 표현에 도관 은유를 개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 자리에 앉으시오’라는 문장은 문맥이 없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비문이 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사과 주스 자리’라는 표현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지시하는 관습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34).

레디의 도관 은유 이론을 참고하여 Lakoff&Johnson(1980)에서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은유를 더 구체화하였다. 은유의 본질을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24)이라고 지적하였고

6) 언어 표현을 낱말들이 모여서 된 하나의 어휘장(그릇)으로 보고, 이 그릇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어휘(아이디어)는 구체적인 물건으로 간주된다. 화자는 아이디어(물건)를 어휘장(그릇)에서 꺼내서 어떤 소통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청자에게 보낸다.

은유를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임지룡·김동환 옮김, 2006:52).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는 사건, 행위, 정서, 생각 등을 대상(특히 우리 자신의 몸)이나 물질로 간주하는 은유적 개념이다(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59). 이 은유에는 사건, 행위, 정서, 생각 등을 한 개체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시하고 양화하며 그것의 특별한 양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노양진·나익주 옮김, 2006:60). 존재론적 은유 표현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 ㄱ. a. 행복 찾기를 다시 시작했다. 『펭귄의 날개』
 b. 我想人奮鬥的本質都是爲了幸福吧. 『微博』
 사람이 노력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닐까? 『웨이보』
- ㄴ. a.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 『어울리는 삶』
 b. 每次大吃過後,都會產生深深的罪惡感. 『微博』
 매번 크게 먹고 나면 죄의식이 짙어집니다. 『웨이보』
- ㄷ. a. 거품 같은 사랑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그 시작』
 b. 靠自己的力量,實現自己大大小小的夢想. 『微博』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크고 작은 꿈을 실현합니다. 『웨이보』

위에서 보여 주듯이, 예문 ‘ㄱ’은 [행복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한 것이다. 이 은유 표현에서 ‘행복’을 한 개체로 보고 사람들이 이를 식별하여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구현된 존재론적 은유 개념이다. ‘ㄴ’에서의 예문들은 [죄의식을 개체], [죄책감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된다. 표현에서는 추상 개념인 ‘죄의식’과 ‘죄책감’이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질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깊음이나 얕음을 측정할 수 있다. 예문 ‘ㄷa’는 [사랑을 거품], 예문 ‘ㄷb’는 [꿈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서 개념화한다. 예문 ‘ㄷa’에서는 추상 개념인 ‘사랑’을 ‘거품’으로 보고 ‘거품’이 쉽게 깨지는 양상을 ‘사랑’이라는 추상 개념에 투사하여 개념화된 것이고 예문 ‘ㄷb’에서는 ‘꿈’이라는 추상 개념을 한 개체로 보고 이 개체의 공간적 크기 양상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그릇 영상 도식(container image schema)⁷⁾ 은유는 존재론적 은유 유형 중 대표적

7) 그릇 영상 도식(container image schema)은 ‘안’, ‘경계’, ‘밖’의 구조로 이루어진 영상 도식으로

인 은유이다(李璵, 2004 : 80). Lakoff&Johnson(1980)에서는 ‘땅’, ‘시아’ 등 그릇 영상 도식 은유를 연구하였는데 Sandra Peña(2003)에서는 그릇 영상 도식 은유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릇 영상 도식 은유의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ㄱ. 마음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a. 마음속 깊이 충격을 받았다. 『새날의 지성』

b. 他內心充滿了一種自責的心情。『人性的枷鎖』

그의 마음속은 일종의 자책하는 기분으로 가득 찼다. 『인간의 가쇄』

ㄴ. 눈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a.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같은 것이 있었다. 『수필공원 94 봄』

b. 他的眼中充滿了憤怒和憎惡。『虫之歌』

그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곤충의 노래』

위의 예문 ‘ㄱ’은 그릇 영상 도식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되고 마음속에 있는 ‘충격’, ‘놀람’, ‘자책감’ 등 감정은 그릇에 있는 물질로 간주된다. 예문 ‘ㄴ’은 그릇 영상 도식 은유를 이용하여 신체 부위인 ‘눈’은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되고 눈에 있는 ‘두려움’, ‘슬픔’, ‘분노’, ‘증오’ 등 감정은 그릇에 있는 물질로 간주된다.

본고는 Lakoff&Johnson(1980)에서의 존재론적 은유와 Sandra Peña(2003)에서의 그릇 영상 도식 은유를 바탕으로 한국어 ‘길다’와 중국어 ‘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3. ‘길다/짧다’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

본 절에서는 존재론적 은유 이론을 사용해서 ‘길다/長’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길다/長’은 [시간을 개체]로 보는 은유, [분량을 개체]로 보는 은유, [감정을 개체]로 보는 은유, [지능을 개체]로 보는 은유, [신체 부위를 그릇]으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나타나는 동시에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 이 영상 도식의 일차적인 경험은 우리의 몸이다(임지룡, 2017:149). 예를 들면, ‘존은 방에서 나갔다’, ‘메리는 차에서 내렸다’라는 언어적 표현에서 그릇 영상 도식이 나타난다.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pp.110-111.

1) [시간을 개체]로 보는 은유

공간 형용사 ‘길다/長’은 시간 명사, 시간 의미를 가진 사건 명사, 시간 의미를 가진 행위 명사와 결합하여 [시간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대칭 양상을 이룬다. 이는 아래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4) ㄱ. a. 그 양반과는 긴 시간 얘기를 나누어도 지루하지 않다. 『신동아 통권』
 b. 長時間請假不工作。『漢語大辭典』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내어 일을 하지 않는다. 『중국어대사전』
- ㄴ. a. 빈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고 길다. 『차 한 잔의 사상』
 b. 漫漫長夜，誰能撫慰我這顆孤獨的心？『中國北漂藝人生存實錄』
 긴 밤에 외로운 마음을 누가 달래줄 수 있겠나? 『중국 북표 예인 생존 실록』
- ㄷ. a. 긴 세월에 곡예를 하며 사는 것이 피곤하다.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찾아라』
 b. 人生百年歲月長，這位偉人將永遠珍藏在人民的記憶深處。『新聞』
 긴 세월에 이 위인은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뉴스』
- ㄹ. a. 봄은 너무 짧고 여름은 너무 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두부』
 b. 年輕人說夏天長冬天短。『宇宙浪子』
 청년은 여름은 길고 겨울은 짧다고 한다. 『우주 탕자』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다/長’은 시간 명사인 ‘시간/時間’, ‘밤/夜’, ‘세월/歲月’, ‘여름/夏天’과 결합하여 [시간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시간이 오래되다’의 은유 의미를 지칭하는 데 대칭 양상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문 ‘ㄱ’에서는 [시간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시간/時間’을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는 공간적 길이의 의미를 가진 ‘길다/長’과 결합하여 ‘시간/時間’에 선(線)적인 특징을 부여하여 ‘시간이 오래되다’의 은유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ㄴ’에서는 [밤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길다/長’의 원형의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이 표현에서 추상 개념인 ‘밤/夜’는 우선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고 이 대상의 공간적 길이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투사되어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구현된다. 예문 ‘ㄷ’에서는 [세월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세월/歲月’이라는 추상 개념에 구체적인 대상의 특성을 부여하여 이 대상의 공간적 길이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투사되어 ‘시간이 오래되다’라는 은유 의미로 개념화된다. 예문 ‘ㄹ’에서는 [여름을 개

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길다/長’의 원형 공간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된다.

형용사 ‘길다/長’은 시간 의미를 가진 ‘사건 명사’와 결합하여 존재론적 은유 인지 기제를 사용해서 원형 공간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하기도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5) ㄱ. a. 사람들은 아주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하였다. 『한국사 특강』
 b. 他計劃在進行一次長期旅行后,拍攝一部以巫山爲內容的電影。『新聞』
 그는 긴 여행을 한 후 우산을 내용으로 한 영화를 촬영할 것이다. 『뉴스』
- ㄴ. a. 긴 휴가 째 내기 어려운 사람을 기다리는 산 숲이다. 『조선일보』
 b. 女兒從來沒有度過長假。『從普通女孩到銀行家』
 딸은 긴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평범한 소녀에서 은행가로』
- ㄷ. a. 상영시간이 가장 긴 영화이다. 『좋은 생각』
 b. 這是超越偶像劇的偶像劇,更像是超長電影。『微博』
 아이돌 드라마를 넘어 긴 영화에 가까운 아이돌 드라마이다. 『웨이보』
- ㄹ. a.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표준국어대사전』
 b. 惡運又使詩人喟然長嘆：“藝術悠長, 光陰短促”。『讀書』
 악운에 시인은 ‘예술은 길고 시간은 짧다’며 한숨을 쉬었다. 『독서』
- ㅁ. a. 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민족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전환의 역사』
 b. 幾何學發展歷史悠長, 內容丰富。『当代』
 기하학 발전의 역사가 길고 내용이 풍부하다. 『당대』
- ㅂ. a. 그는 긴 인생의 중도에서 주저앉아버리게 될 것이다. 『창조적 삶의 즐거움』
 b. 人生太長了, 要顧的東西太多了。『流浪記』
 인생은 너무 길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요. 『방랑기』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 형용사 ‘길다/長’은 사건 명사인 ‘여행/旅行’, ‘휴가/假期’, ‘영화/電影’, ‘예술/藝術’, ‘역사/歷史’, ‘인생/人生’과 결합하여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시간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대응 양상을 이룬다.

먼저, 예문 ‘ㄱ’에서는 [여행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사건 명사인 ‘여행/旅行’을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여 대상의 공간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에 투사하여 ‘여행/旅行을 위하여 걸린 시간이 많다’는 은유 의미가 된다. 예문 ‘ㄴ’에서는 [휴가를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공간 의미를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한다. 이는 ‘휴가’라는 추상 개념을 한 개체로 보고 이 대상의 공간적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휴가 시간이 오래되다’의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예문 ‘ㄷ’에서는 [영화를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추상 개념인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대상의 공간 길이 의미를 ‘영화를 보기 위해 걸린 시간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또한, 예문 ‘ㄴ’에서는 ‘길다/長’이 ‘예술/藝術’과 결합하여 [예술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시간 개념이 구현된다. 이 표현에서, ‘예술/藝術’은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원형 공간 의미가 시간 영역에 투사하여 ‘예술/藝術이 지속되는 시간이 오래되다’의 은유 의미가 개념화된다. 그리고 예문 ‘ㄹ’에서는 [역사를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된다. 여기서, ‘역사/歷史’를 개체로 보고 개체의 공간적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역사가 오래되다’의 은유 의미를 개념화하는 면에서 ‘길다/長’은 대응 양상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예문 ‘ㄹ’에서는 추상 개념인 ‘인생/人生’은 ‘길다/長’과 결합하여 [인생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공간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되어 개념화된다.

공간 형용사 ‘길다/長’은 시간 의미를 가진 ‘한숨/嘆息’, ‘하품/哈欠’, ‘연설/演說’, ‘침묵/沈默’, ‘얘기/談話’ 등 행위 명사와 결합하여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공간 길이의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6) ㄱ. a. 형님께서도 때때로 긴 한숨 지으신다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객주5』
 b. 他吸了一口烟，聲音化作了一聲長長的嘆息。『月朦朧鳥朦朧』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마셨고 목소리는 긴 한숨으로 바뀌었다. 『흐릿한 달과 새』
- ㄴ. a. 그는 벌써 길게 하품부터 했다. 『랩스터를 먹는 시간』
 b. 衆人失去了听故事的興趣打起了長長的哈欠。『平凡的世界』
 사람들은 얘기를 듣는 흥미를 잃었고 길게 하품을 했다. 『평범한 세계』
- ㄷ. a. 연설자는 그의 긴 연설 속에 이야기를 끼웠다. 『표준국어대사전』
 b. 我在那些滑稽的法官面前發表了長長的演說。『在路上』
 나는 그 우스꽝스러운 판사들 앞에서 긴 연설을 했다. 『도중에』
- ㄹ. a. 긴 침묵 뒤에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젊은 그들』
 b. 他又和先一樣，蹦出一個問題來後便陷入長長的沈默中。『誘拐』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질문이 나온 후 긴 침묵에 빠졌다. 『유괴』
- ㄹ. a. 그저 경아를 품에 안고 긴 얘기 나눠보고 싶다. 『별들의 고향』
 b. 他們單獨坐下來，在賓館的餐廳里開始了長談。『海南无夢』

이들은 단둘이 앉아 호텔 식당에서 긴 얘기를 시작했다. 『해남 무몽』

위의 예문에서 보여 주듯이, 공간 형용사 ‘길다/長’은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대응 양상을 이룬다.

먼저, 예문 ‘ㄱ’에서 ‘길다/長’은 [한숨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양상에서 대응 관계를 이룬다. 표현에서 ‘한숨/嘆息’이라는 행위가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대상의 공간 길이 의미가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한숨을 오랫동안 쉬다’의 의미가 개념화된다. 또한, 예문 ‘ㄴ’에서는 [하품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하품/哈欠’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간주되고 대상의 공간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에 투사하여 ‘하품을 오랫동안 하다’의 의미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문 ‘ㄷ’에서는 [연설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의미 확장을 이루는데 이 표현에서 대상의 공간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에 투사하여 ‘행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은유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예문 ‘ㄹ’에서 [침묵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하여 ‘침묵/沈默’이라는 행위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이 공간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에 투사하여 개념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문 ‘ㄱ’에서는 [얘기를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추상 개념인 ‘얘기/談話’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보고 대상의 공간적 길이 의미를 시간 영역으로 확장하여 ‘행위를 진행하여 걸린 시간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2) [분량을 개체]로 보는 은유

형용사 ‘길다/長’은 ‘내용/內容’, ‘시/詩’, ‘소설/小說’, ‘논문/論文’, ‘편지/信’ 등의 명사와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의미가 분량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7) ㄱ. a. 내용이 긴 책이 이해하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
 b. 當資料內容較長時,會影響工作的效率。『科技文獻』
 데이터의 내용이 길면 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 문헌』
- ㄴ. a. 너 그 긴 시 끝까지 외울 수 있어? 『해치는 소리』
 b. 我要去採訪她, 把她的故事寫成一首長詩。『腦裂』
 나는 그녀를 인터뷰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긴 시로 쓸 것입니다. 『뇌열』
- ㄷ. a. 긴 소설 ‘흑풍’은 혁명을 주제로 다루는 소설이다. 『문학과 지성』
 b. 我拜讀到一部以建築民工的生活爲題材的長篇小說。『科技文獻』
 나는 건축 노동자의 삶을 다룬 긴 소설을 읽었다. 『과학기술 문헌』

- ㄹ. a. 이렇게 긴 논문은 한 달 안에 완성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b. 朱延丰把他的一篇長論文提請教授審閱. 『科技文獻』
 주연풍은 그의 긴 논문을 교수에게 검토 요청하였다. 『과학기술 문헌』
- ㄱ. a. 그는 사랑에 빠진 기쁨을 긴 편지 속에 썼다. 『좋은 생각』
 b. 朱埃勒給未婚妻寫了一封長信. 『昂梯非爾奇遇記』
 주엘러는 약혼녀에게 긴 편지를 썼다. 『앙티펠 신비로운 만남 전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다’와 ‘長’은 ‘내용/內容’, ‘시/詩’, ‘소설/小說’, ‘논문/論文’, ‘편지/信’ 등 ‘분량’의 의미를 지닌 표현과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의미가 추상 개념인 분량 영역으로 확장하여 ‘양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가진다.

예문 ‘ㄱ’에서는 ‘길다/長’은 추상 개념인 ‘분량’을 지칭하는 ‘내용/內容’과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내용의 분량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예문 ‘ㄴ’에서는 추상 개념인 ‘시/詩’가 공간 형용사 ‘길다/長’과 결합하여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시/詩의 분량이 크다’는 은유 의미가 확장된다. 예문 ‘ㄷ’에서는 ‘분량’이라는 추상 의미를 가진 ‘소설/小說’이 공간 형용사 ‘길다/長’과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소설/小說 분량의 많음’을 개념화한다. 예문 ‘ㄹ’에서는 ‘논문/論文’이 공간 형용사 ‘길다/長’과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통해서 추상 개념인 분량 영역으로 확장하여 ‘논문/論文的 양이 많다’는 은유 의미가 된다. 예문 ‘ㄱ’에서는 ‘분량’ 의미를 가진 ‘편지/信’은 공간 형용사 ‘길다/長’과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의미가 분량 영역으로 확장되어 ‘편지/信 내용의 분량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가진다.

형용사 ‘길다/長’이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에서 대응 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어떤 표현에서 세밀한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8) a. 내가 그것을 읽지 않은 까닭이 긴 분량 때문이었다. 『누님의 초상』
 b. 中國文學史上,詩歌占有很大分量. 『中國道教』
 중국 문학사에서 시가는 매우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도교』

위에서 보여 주듯이, 예문 ‘a’에서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는 추상 개념인 ‘분량’과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다른 추상 영역으로 확장하여 ‘양의 비중이 크다’는 은유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에 예문 ‘b’에서는 ‘분량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할 때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과 결합하지 않고 주로 ‘크

다’와 결합하여 구현하는 면에서 ‘길다/長’은 대칭 양상을 이루지 못한다.

3) [감정을 개체]로 보는 은유

형용사 ‘길다/長’은 [감정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공간 길이 의미의 감정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하는 양상을 대조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9) ㄱ. a. 긴 고통에서 그는 주위의 사람을 낯설게 바라본다. 『삶을 위한 비평』
b. 長痛不如短痛,只有通過手術去掉腫瘤,才是保護健康的辦法. 『科技文獻』
긴 아픔보다 짧은 아픔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 수술을 통해 종양을 없애는 것만이 건강을 지키는 최선책이다. 『과학기술 문헌』
- ㄴ. a. 높고 길게 울다. 『표준국어대사전』
b. 他奪門而出仰天長哭. 『微博』
그는 문을 박차고 나와 하늘을 우러러 길게 울었다. 『웨이보』

위의 예문 ‘ㄱ’에서 보여 주듯이, 형용사 ‘길다/長’은 [고통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추상 개념인 ‘고통’을 한 개체로 보고 이 개체의 물리적 공간 길이 의미로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고통이 심하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하는 점에서 대응 양상을 이룬다. 예문 ‘ㄴ’에서는 [슬픔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서 ‘울음’이라는 추상 감정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 ‘길다/長’의 공간 길이 의미를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사람의 슬픈 감정이 깊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용례에서 중국어 ‘長’은 ‘그리움’, ‘기쁨’ 등과 같은 다른 감정 영역에서 개념화 양상을 이루지만 한국어 ‘길다’ 용례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10) a. 沒有常常的相見,只有長長的思念. 『微博』
늘 만나지 못하고 깊은 그리움만 있다. 『웨이보』
b. 母親突然仰天長笑. 『通天塔』
어머니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었다. 『통천탑』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어 ‘長’은 [감정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공간 의미는 ‘그리움’, ‘기쁨’ 등 다양한 감정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문 ‘a’에서는 [그리움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추상 감정인 ‘그리움’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長’의 공간 길이 의미를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그리운 감정이 깊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예문 ‘b’에서는 [기쁨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추상 감정인 ‘웃음’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여 ‘長’의 공간적 길이를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기쁨이라는 감정이 깊다’는 은유 의미를 이룬다. 이로부터 보면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은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에 비해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개념화하는 활성화가 더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 [지능을 개체]로 보는 은유

한국어 형용사 ‘길다’는 ‘생각’, ‘안목’ 등 인간의 지능(知能)과 관련된 추상 명사와 결합하여 [생각을 개체], [안목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면에서 ‘長’과 대응 양상을 이루지 못한다. ‘길다/長’은 ‘생각’, ‘안목’ 등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1) [생각을 개체]로 보는 은유

- a. 긴 생각 끝에 토닥거리는 손가락으로 인터폰을 눌러 지시한 윤실장은 하고는 푸념처럼 혼잣말을 했다. 『유언의 땅』

위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어 ‘길다’는 추상 개념인 ‘생각’과 결합하여 [생각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신중히 생각하다’의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반면에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은 ‘想法(생각)’과 결합하는 용례를 보이지 않았고 ‘想法(생각)’은 주로 중국어 다른 공간 척도 형용사와 결합하여 개념화하는 면에서 한국어 ‘길다’와 대응 양상을 이루지 못한다. 아래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2) a. 翁先生暫時還沒太大的想法，這筆錢想留待以后慢慢打算。『都市快訊』

옹선생은 아직 큰 생각이 없고 이 돈은 남겨 두었다가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도식 속보』

b. 我有个小小的想法。『清潔女工之死』

나는 작은 생각이 있다. 『청소부 아줌마의 죽음』

위의 예문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어 공간 척도 형용사 ‘長’은 추상 개념인 ‘想法(생각)’과 결합하는 표현이 보이지 않았고 ‘想法(생각)’은 주로 중국어 공간 척도 형용사 ‘大(크다)’, ‘小(작다)’와 결합하여 [생각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

형 공간 의미가 추상 영역에 투사하여 의미를 개념화한다.

형용사 ‘길다’와 ‘長’은 각각 ‘안목’, ‘眼光’과 결합하여 [안목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은유적 의미를 이루는데 이런 개념화 과정에서 ‘길다’와 ‘長’은 대응 양상이 되는 동시에 세밀한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3) [안목을 개체]로 보는 은유

- a. 우리의 역사도 긴 안목으로 본다면 민권이 신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증대하는 발전의 역사다. 『한국 언론의 좌표』
- b. 人要有長遠眼光,從世界全局看問題. 『人民日報』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전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인민일보』

위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어 ‘길다’는 추상 명사 ‘안목’과 결합하여 [안목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한다. 중국어의 경우, ‘長’은 ‘안목’을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없고 주로 다른 공간 형용사 ‘远(멀다)’와 먼저 결합한 후에 추상 개념인 ‘眼光(안목)’과 결합하여 은유적 개념을 이룬다. 그렇기에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는 중국어 ‘長’에 비해 추상 개념인 ‘안목’과의 결합이 더 자유롭고 또한 덜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신체 부위를 그릇]으로 보는 은유

인간이 자신의 몸을 하나의 그릇(container)으로 간주하여 ‘머리’, ‘마음’, ‘눈’ 등 신체 부위를 모두 그릇으로 간주할 수 있다⁸⁾.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경험은 ‘방’, ‘욕조’,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 등 다른 물리적 대상에 확장하여 물리적 대상을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태도’, ‘의견’ 등을 담고 있는 ‘소설’이나 ‘시’ 등도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을 그릇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곤경(困境)’, ‘감정’ 등 추상 개념도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할 수 있다(趙秀傑·曹忠芹, 2008 : 6). 즉, 인간의 몸, 물리적 공간, 물리적 대상, 추상적 개념 등이 모두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되어 개념화할 수 있다. 중국어 ‘長’ 용례에서 그릇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보이지만 한국어 ‘길다’ 용례에서는 보

8) Sandra Peña는 ‘머리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눈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임지룡·김동환 옮김,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2006, pp.103-117.

이지 않아서 대응 양상을 이루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14) a. 千萬別告訴那些記者,也不要告訴那些嘴長的小朋友們.『中國』
 기자에게도, 입이 긴 어린이들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중국』

위의 예문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은 [입을 그릇]으로 보는 영상 도식 은유를 사용해서 다른 추상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념화된다. 중국어 ‘嘴長(입이 길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의 앞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썽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가리키거나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지껄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풍자한다’는 의미를 지칭한다. 위의 [입을 그릇]으로 보는 영상 도식 표현은 ‘입’이 하나의 그릇으로 간주되어 ‘말’은 ‘입’ 안의 내용물로 간주된다. ‘입’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말이 많이 나온 것을 은유적 인지 기제를 사용해서 구현하였다. 이는 중국 사람들의 문화 의식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중국 ‘論語(논어)’에서 ‘過猶不及(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일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렇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를 지칭하는데 중국 사람들의 인지에는 모든 것은 다 적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이 너무 길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에서 쓸데없는 말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한다.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 용례에서 이와 대응하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고 대응 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론

본고는 Lakoff&Johnson(1980)의 존재론적 은유 이론과 Sandra Peña(2003)의 그릇 영상 도식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형용사 ‘길다/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을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형용사 ‘길다/長’은 ‘밤/夜’, ‘세월/歲月’, ‘여름/夏天’ 등 시간 명사, 시간 의미를 가진 ‘여행/旅行’, ‘휴가/假期’, ‘영화/電影’ 등 사건 명사, ‘한숨/嘆息’, ‘하품/哈欠’, ‘연설/演說’, ‘침묵/沈默’, ‘얘기/談話’ 등 행위 명사와 결합하여 [시간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공간 길이 의미가 시간 영역에 투사하여 ‘시간이 오래되다’의 은유 의미를 개념화하는 면에서 대응 양상을 이룬다.

그리고 형용사 ‘길다/長’은 ‘내용/內容’, ‘시/詩’, ‘소설/小說’, ‘논문/論文’, ‘편지/信’ 등 명사와 결합하여 [분량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양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개념화하는 면에서 대칭 양상을 이루지만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는 직

접적으로 ‘분량’을 수식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은 ‘分量(분량)’과 결합하지 않고 주로 공간 형용사 ‘大/(크다)’는 ‘分量(분량)’과 결합하여 ‘양이 많다’는 은유 의미를 지칭하는 면에서 비대응 양상을 이룬다.

또한, 형용사 ‘길다/長’은 [감정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원형 공간 의미를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개념화하는 면에서 대응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세밀한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길다/長’은 [고통을 개체], [슬픔을 개체]로 보는 은유 개념화 양상에서 대응 양상을 이루는 반면에 중국어 ‘長’은 [그리움을 개체], [기쁨을 개체]로 보는 은유를 통하여 다른 감정 영역에 투사할 수 있지만 한국어 ‘길다’ 용례에서는 이런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보이지 않아서 비대응 양상을 이룬다. 이런 면을 감안하여, 중국어 공간 형용사 ‘長’은 한국어 공간 형용사 ‘길다’에 비해 감정 영역에 투사하여 개념화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밖에, 형용사 ‘길다/長’은 ‘생각’, ‘안목’ 등 추상 개념과 결합하여 [지능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한국어 형용사 ‘길다’는 [생각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추상 영역에서 개념화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長’은 이와 대응하는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형용사 ‘길다/長’은 모두 [안목을 개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를 사용해서 개념화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나타나지만 중국어의 경우, ‘長’은 먼저 ‘遠(멀다)’와 결합한 후 다시 ‘안목’을 수식하는 면에서는 ‘길다’와 세밀한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신체 부위를 그릇]으로 보는 영상 도식 은유의 개념화 양상에서, 중국어 ‘長’은 [입을 그릇]으로 보는 영상 도식 은유를 사용해서 추상 영역에 투사하여 개념화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 ‘길다’ 용례에서는 이와 대응되는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비대응 양상이 나타났다.

본고는 공간 형용사 ‘길다/長’의 존재론적 은유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았고 앞으로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등 인지 기제를 사용해서 ‘짧다/短’, ‘크다/大’, ‘작다/小’, ‘깊다/深’, ‘얕다/淺’ 등 다른 공간 척도 대립어 쌍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언어학자들이 한·중 공간 형용사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임지룡,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2017.

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7.

Johnson, *The Body in the Min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노양진 옮김, 『마음 속의 몸』, 철학과 현실사, 2000.

Lakoff & Johnson, *Metaphor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노양진·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6.

Sandra Peña, *Topology and Cognition: What Image-schemas Reveal about the Metaphorical Language of Emotions*, Lincom Europa, 2003. 임지룡·김동환 옮김,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2006.

<논문>

김억조, 「‘길다/짧다’의 사전적 처리와 의미 대립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43호, 국어교육학회, 2008.

마교교, 「한·중 척도형용사의 대조 연구 - ‘크다’, ‘높다’, ‘길다’, ‘깊다’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7.

서 양, 「한·중 양극적 맞섬말의 다의 구조 연구 - 척도 형용사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13.

이선희, 「한중 공간형용사의 의미 확장 대조 연구 - ‘寬넓다, 窄좁다’를 중심으로」, 『중국어학』 74호, 대한중국어학회, 2021.

장 기, 「漢韓空間維度詞對比分析」, 『중국어학연구』, 37호, 중국학연구회, 2006.

장경희·권우진, 「一次元語의 意味習得過程에 관한 연구 - ‘가깝다’, ‘멀다’, ‘길다’, ‘짧다’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최미정, 「‘길다-짧다’에 대한 유아의 판단 능력」,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3.

李 璘, 「“里外”域隱喻概念意義研究」, 『四川教育學院學報』, 第20卷第9期, 2004.

皮 奕, 「‘長/短’的對稱與不對稱分析」, 廣西師範大學碩士論文, 2010.

王銀平, 「英漢空間維度詞‘長、短’的認知隱喻對比研究」, 『長江大學學報(社科版)』, 第38卷 第12期, 2015.

楊艷蘭, 「從‘長’、‘短’不對稱現象看詞語的選擇」, 『文學教育(下)』, 第5期, 2009.

趙秀杰·曹忠芹, 「論容器隱喻的功能及映射」, 『西昌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期, 2008.

<기타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민족문화연구원-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http://riksdb.korea.ac.kr/>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중국 CCL 말뭉치: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중국 BCC 말뭉치: <http://bcc.bcu.edu.cn/>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長, 本体隐喻, 意象图式隐喻, 概念化, 对比研究				
	영문	Long, Ontological metaphor, Image schema metaphor, Conceptualization, Contrast study				
<div>A Study on the Ontological Metaphor Conceptualization of ‘길다/長(long)’</div> <div>Lin Ping</div> <p>This paper contrasts and analyzes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ontological metaphors of Korean ‘길다’ and Chinese ‘長’ from a cognitive semantic perspective. The ‘길다/長’ use the metaphor of [time as an entity] to achieve a corresponding aspect in that the spatial meaning is extended to the temporal domain. In addition, Korean spatial scale adjective ‘길다’ and Chinese spatial scale adjective ‘長’ have several kinds of metaphors, such as [quantity as an entity], [insights as an entity] etc. The metaphors of ‘길다/長’ form corresponding similarities and show subtle differences. Among the conceptualization in the emotional domain, Korean ‘길다’ and Chinese ‘長’ show a corresponding aspect in that the meaning is expanded by using the metaphor of [pain as an entity] and [sadness as an entity]. However, the Chinese spatial scale adjective ‘長’, using the metaphors of [miss as an entity], [joy as an entity] can be projected into other emotional domains and has achieved a non-corresponding aspect to Korean spatial scale adjective ‘길다’. Lastly, the meanings ‘길다’ is expanded by using the metaphors of [thinking as an entity], whereas the Chinese ‘長’ does not show a corresponding metaphor. Furthermore, the Chinese ‘長’ is conceptualized using the metaphor of [mouth as a container], but the Korean ‘길다’ does not show a corresponding metaphor.</p>						
저 자	임평 / 林苹 / Lin Pi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06.	심 사 일	2022.02.23.	게재확정일	2022.03.11.